

도 민선9기 문화·체육·관광 성장엔진 시동

체육관광 육성 예술인 지원 확대
생활체육·국가유산 관광자원화

전북도가 2026년 하반기부터 민선9기 문화체육관광 분야 핵심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문화산업은 기업의 성장과 투자로, 관광은 체류와 소비로, 체육은 생활복지와 지역경제로, 국가유산은 교육·관광·콘텐츠로 연결해 지역 안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지역의 전통문화와 특화산업을 바탕으로 'K-Story 콘텐츠 산업거점'을 조성한다. 도는 총 495억원을 투입해 기업 입주와 연구개발, 콘텐츠 제작·교류 기능을 갖춘 K-문화콘텐츠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전주·남원·익산을 지역별 특화 콘텐츠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주는 영화·영상과 한스타일, 남원은 옷칠공예·도자·국악, 익산은 실감콘텐츠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추진한다. 올해 11월부터 2개소 이상에 대한 지정 심의와 고시를 추진하고, 입주기업에는 제작비와 임대료, 전문인력, 마케팅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콘텐츠기업 지원도 성장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업 전수조사를 통해 매출과 고용, 지식재산권, 투자와 정책지원 이력을 관리하고, 성장단계와 IP 경쟁력에 따라 제작·인력·마케팅·국내외 판로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200억원 규모의 문화콘텐츠 펀드도 조성해 민간투자 유입을 촉진한다.

지역예술인의 소득과 복지 기반도 강화한다. 올해 6월 기준 도내 등록예술인은 6,764명이지만 개인 창작소득은 연평균 1,083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도는 예술인 창작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와 시군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공공 문화예술사업에 지역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쿼터제도 검토한다.

예술인복지증진센터는 상담·실행조사·소득지원 기능을 갖춘 예술인통합지원센터로 확대하고, 25개 사업 71억5천만원 규모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창작부터 사업화와 시장진출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제로 정비한다.



문화·관광으로
전북 미래 연다

전북도는 민선9기 문화·체육·관광 분야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사진은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부지 후보인 무주 설천면 태권도원.

<사진=태권도원>

관광 분야는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도는 제8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과 정부의 지역 K-관광개발 정책을 바탕으로 시군의 역사·문화·생태·자연유산을 체험과 숙박, 먹거리와 결합한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고, 관광객거점과 이동경로를 연결해 광역관광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전북의 음식문화는 체류형 관광의 핵심 콘텐츠로 육성한다.

글로벌 K-푸드 페스티벌과 미식관광 인증체계, 지역별 특화상품을 마련하고 K-푸드로드와 K-미식벨트 등 국가정책과 연계해 전북을 대표 미식관광지로 키워갈 계획이다.

반값여행과 야간관광, 위케이션도 하나의 체류전략으로 묶어 숙박과 체험, 야간 콘텐츠를 확충한다. 산악관광은 휴양과 치유, 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화하고, 장수 트레일레이스를 무주와 진안 등 동부권으로 연계한다.

체육 분야에서는 생활체육 기반과 전문체육 경쟁력을 함께 강화한다. 도는 2030년까지 4,930억원을 투입해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와 지역 특화 체육시설을 확충한다. 파크골프 수요 증가에 대응해 180홀 이상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방안을 검토하고, 스포츠·공연 복합형 동구장 유치를 위한 정부 공모에도 대응한다.

현재 45개인 도내 직장운동경기부에는 2030년까지 8개 팀을 추가하고, 신규 팀 창단과 시군 실업팀 운영 지원도 확대한다. 도내 두 번째 프로스포츠구단 유치를 위해 야구와 농구, 배구 등을 대상으로 경기장 여건과 도민 선호도, 운영 가능성을 분석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갖춘 기업형 구단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무주 태권도원에는 총 452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를 건립한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와 심판, 선수의 교육·연수와 학술대회, 문화교류 기능을 갖추고, 2029년까지 건립을 마쳐 무주를 세계 태권도 교육과 교류의 중심지로 육성한다.

국가유산 분야에서는 역사문화자산을 교육과 관광, 콘텐츠산업으로 연결한다. 동학농민혁명 분야에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235억원을 투입해 세계기록유산 기록관과 평화·인권 국제상, 국제포럼, 문화콘텐츠 사업을 추진한다. 기록관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기록물 185건의 보존·연구·교육·전시 기능을 갖춘다.

후백제와 전라감영은 전주 구도심의 역사문화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자원으로 활용한다. 2040년까지 934억원을 투입해 후백제 역사공원과 견훤사당을 조성하고, 전라감영 서측·남측 부지 복원

을 추진한다. 남고산성과 동고산성 등 주변 유적도 전시와 체험 콘텐츠로 연결할 계획이다.

종교문화자산에는 2026년부터 2033년까지 300억원을 투입해 익산 나바위성당 성지문화체험관과 군산 은적사 전통문화체험관을 건립하고, 전주 전통성당과 치명자산을 잇는 국제순례길을 조성한다.

특히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와 연계해 국내외 청년들이 전북의 순교성지와 전통문화, 자연환경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순례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장정철 기자

이명연 “전북 혼인율 최하위… 결혼 장벽 낮출 정책 전환 시급”

결혼 초기 비용 부담 심화 지적
공공웨딩 플랫폼 구축 제안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은 30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도내 혼인율 감소 실태를 지적하며, 청년들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해 1~4월 기준 전국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6.8% 증가했지만, 전북은 오히려 6.2% 감소해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며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 역시 3.4건으로 전국 평균(4.9건)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혼부부 평균 결혼 비용은 주택구입비를 포함하여 약 3억 8천만 원에 이르고, 도내 일부 예식장의 성수기 대관료는 최고 900만원, 식대도 1인당 8만 2천 원 수준”이라며 “청년들에게 결혼은 축복이 아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장의 절박함과 동떨어진 전북자치도의 탁상행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도내 공공예식장 14곳 중 전주 시 6개 시설은 최근 3년 간 이용 실적에 전무한데도 시설 개선보다 단발성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인구청년정책과의 인구정책 개발 및 저출생 대응 활성화 예산 약 10억 5



이명연 도의원

천만 원 전액이 출산과 양육 단계에만 편중되어 있는 기형적 구조를 지적하며, 정착 청년들의 결혼 진입을 돕는 사업 예산은 단 한 톨도

없이, 공공예식장 개방과 같은 비예산 사업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태를 집중 질타했다.

아울러 전주·군산·익산 등 6개 시·군에는 결혼축하금이 없고, 일부 군 지역도 3~5년 분할 지급방식이어서 청년들이 초기 계약금과 대관료를 감당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연 의원은 ▲ 계약금과 대관료 등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선지급 결혼 바우처'로 전환해 14개 시·군에 균등 지원하고 ▲ 가격 정찰제 우수 업체를 보증하는 '전북형 공공 웨딩 플랫폼'을 구축하며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대출 이자 지원을 묶은 '결혼-주거 원스톱 연계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이명연 의원은 “청년이 결혼을 포기한 지역에는 미래도 없다”며 “전북자치도가 든든한 '공공 웨딩 플래너'로 거듭나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정철 기자

민주·무당층 김민석 41.6% 정청래 37.7%

최고위원 지지도 최민희 박선원 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와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당대표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정청래 전 대표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여론조사업체 <STI>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성인 가운데 민주당 지지도 및 무당층 1184명을 대상으로 당대표 후보 지지도 조사를 한 결과 김민석 41.6%, 정청래

37.7%, 송영길은 9.5% 순으로 나왔다.

민주당 지지도(N=996)에서는 김민석 44.9%, 정청래 39.7%, 송영길 9.9% 순이었다.

또 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 밝힌 응답자(N=379)는 김민석 46.3%, 정청래 43.6%로 접전 양상이었고, 송영길은 7.3%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이 선호투표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김 전 총리가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고위원후보 지지도에서는 최민희

(17.1%), 박선원(15.7%), 한민수(11.8%), 서미화(11.4%), 김용(10.7%), 이성윤(9.4%), 임미애(4.3%), 김영호(3.1%) 후보 순으로 나왔다. '없음'은 10.3%, '잘 모르겠음'은 6.3%였다.

최고위원은 상위 5명까지 당선자가 되며, 복수 투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순위가 크게 바뀔 수 있다.

이번 휴대전화 RDD 방식의 ARS 여론조사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p다.

<2면에서 계속>

임실군의의회

Imst-Gun Council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

제10대 임실군의의회

의장 정일윤

부의장 김종수

운영행정위원장 박선옥

농업복지위원장 라시열

의원 김종규

의원 김정흠

의원 임은두

의원 김진환

전북도, 12년 만에 위반건축물 양성화

내년 12월부터 18개월 특별조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합법화
근생빌라·전세사기피해주택 포함
주차장·도로기준 일부 완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생계형 공간 확장이나 현행법과의 괴리로 장기간 방치돼 온 주거용 위반건축물 구제에 나선다. 도는 지난 6월 16일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 간, 관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하는 한시적 양성화 특별조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결과 2024년 말

기준 전국 위반건축물은 약 14만 8,000동으로, 이 가운데 56.5%가 주거용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이 절반을 넘어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조치는 단속 위주 행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안심 주거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주택으로 써 온 이른바 ‘근생빌라’가 포함된다. 절차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사를 통해 작성한 설계도서

와 현장조사서를 갖춰 시·군에 신고하면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가 진행된다. 구조안전과 위생, 방화, 일조권 등에 현저한 지장이 없으면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한 뒤 사용승인을 받는다. 주요 특례로는 건축물과 접한 도로의 최소 너비를 4m에서 3m로 낮추고,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해도 추가 설치 의무를 완화하거나 면제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 국토부는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연내 시행령 등 하위법령과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비롯한 세부 절차를 담은 방침이다. 도는 인허가권자인 시·군과 예상 정

점을 미리 검토해 정부 공동지침에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측량·도면 작성에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지역건축사협회와 함께 사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2014년에는 전국 주택 2만 6,924동, 도내 332동이 합법화됐다. 이번에는 근생빌라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새로 포함되고, 시행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6개월 늘었다. 국토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도 병행한다. 국민 생활방식을 반영해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기준을 조정하고, 노후주택 외부계단·옥상 비가림시설과 다가구·다세대주택 보일러실은 층수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장정철 기자

박지원 “천기누설, 당대표 김민석”

박지원(6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누가 당선될 것인냐’는 질문에 “천기누설인데, 김민석이 아닌가”라고 김민석 당대표 당선을 예측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김민석 후보의 우세를 예측했다. 물론 박 의원은 당대표 경선 첫 경합자인 충청권 전당대회 판세와 관련 “아무래도 고향이니까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지 않을까”라면서 “잘 못하면 김민석은 제2의 박찬대가 될 수 있다”고 지난 당대표 경선에서 정 후보가 원조 친명인 박찬대 당시 후보를 이긴 상황을 예로 들었

다. 이어 “(지난 당대표 경선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170여 명, 저도 박찬대 의원을 지원했다”면서도 “그렇지만 결과는 정청래가 뒤흔다. 정청래가 이 감성적 접근을 하는 것이 성공했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첫 후보 토론 때 부자가 몸소심하고 압도적 지지를 받는 김민석 후보가 조심해야 되는 데”라면서 “공격적으로 해버리더라. 신천지 문제를 제기해 버리니까 이게 실패였다. 이는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안호영, 전북 SOC·국책사업 지원 촉구

“6차 건설계획에 모두 반영해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2027년도 전북 핵심사업과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안 의원은 이날 박 장관에게 “완주 상관~전주 색장”을 잇는 국도도 노선과 ‘완주 소양~진안 부귀’ 국도 26호선 등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14개 노선 개선이 노선이 시급하고 중요한 만큼 예타가 통과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어 “14개 노선 전부가 예타를 통과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장수 천천~장계”, 국도 26호선 등 비예타 사업 9개 노

선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전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전북 도로망 확충이 산업과 물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산당국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완주 혁신도시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과 익산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을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다. 두 사업은 안 의원이 국회 기후노동위원장 당시 직접 반영을 이끌어낸 사업으로, 각각 총사업비 350억원, 1,273억원 규모다. 안 의원은 인재개발원에 대해 2027년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반영을, 산재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과 설계비 반영을 요청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실시율 3년 새 20.2%p 하락
장 의원, 교육청 소극 대응 지적
지원체계·전담기구 마련 촉구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전주4)은 30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감소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따르면 전북지역 각급 학교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023년 82.4%에서 2026년 62.2%로 20.2%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2026년 초등학교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42.8%에 불과한 반면, 당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8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연국 도의원

사고 발생 시 담임교사와 인솔교사가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한 교사가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까지 떠안아야 한다면 어느 교사가 안심하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2024년 12월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장과 교직원에게 사고 예방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안전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2025년 6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장 의원은 법 개정 이후에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법률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외부안전요원 운영 과정에서 안전 관련 자격 확인과 증빙서류 징구 절차가 누락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2025년 전북지역 192개 학교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외부안전요원 493명이 배치됐지만, 이들의 안전 관련 자격과 교육 이수 여부가 적절하게 확인됐는지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학생의 안전을 담당하는 외부안전요원의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보조인력 배치는 형식적인 숫자 채우기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도교육청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확실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넘길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

청에 ▲현재 운영 중인 외부안전요원의 안전 관련 자격과 안전교육 이수 여부 및 증빙서류 구비 실태 전수점검 ▲교육청과 학교업무지원센터가 검증된 외부안전요원을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체계 구축 ▲현장체험학습 전담기구 설치 ▲학교급별·지역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감소 원인 조사 ▲교원의 업무 및 법적 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 관련 예산은 학교안전과가 담당하고 관리·감독은 민주시민교육과가 맡고 있는 이원화된 사업구조를 단일화하고, 현장체험학습 용역입찰 시 외부안전요원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업종과 자격 기준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법률과 조례가 부여한 책임에 걸맞게 교원은 안심하고 학생은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사슴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도내 76개 농가 1301마리 대상
전북도는 구제역 청정지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사슴 사육농가의 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8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도내 모든 사슴을 대상으로 ‘2026년 사슴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일제접종은 사슴의 특성상 농가 자체 접종이 쉽지 않은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제역 발생 위험을 사전

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접종 대상은 도내 76개 농가에서 사육 중인 꽃사슴 668마리, 레드디어 53마리, 엘크 580마리 등 총 1,301마리이다. 도는 도비와 시군비 등 총 3,850만 원을 투입해 백신 구입비와 접종 시술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사슴은 야생성이 강하고 보정이 어려워 백신 접종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전북자치도는 사슴 전문개입수의사 6명으로 구성된 6개 접종반

을 편성해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현장접종을 실시한다. 또 수사슴의 녹용 채취와 암사슴의 분만이 마무리되는 8월을 접종 적기로 선정하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완화제를 함께 공급하는 등 안전한 접종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접종 완료 이후에는 항체 양성률을 모니터링해 백신 접종 효과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사슴농장 방역체

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사슴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도입한 이후 매년 사업을 추진하며 사슴농장의 방역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구제역 비발생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과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장정철 기자

<1면에서 이어서>
민주당 권리당원 응답자는 379명으로 조사 결과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5.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이와함께 30일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크>에 따르면, <뉴스토크>의 회로 지난 27~28일 전국 성인 1천33명을 상대로 민주당 당대표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정청래 36.9%, 김민석 28.0%, 송영길 9.2% 순으로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 전대에서 반영하는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에는 김민석 44.9%,

정청래 38.9%로 오차범위내에서 순위가 바뀌었다. 또한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최고위원 선호도 조사에서는 박선원 23.7%, 최민희 23.3%로 초접전중인 가운데 김용(10.5%) 서미화(9.8%) 한민수(5.5%) 임미애(4.5%) 이성윤(4.2%) 김영호(1.6%) 후보 순으로 나왔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RDD)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서울=김영목기자

<본사 인사>

△ 수석논설위원 이경로

-2026년 7월 31일자-

여름철 필수 교통안전 수칙



졸음운전 주의



차량화재 주의



빛길운전 주의



타이어 펑크주의

전북원예농산물, 전국 롯데마트서 만난다

내달 5일까지 전국 106개 매장에서 우수농산물 특판전

전북원예농산물 판매전이 전국 롯데마트 매장(106개)에 오른다.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이원택)와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전국 롯데마트 매장(106개)을 대상으로 전북농산물 판매전을



<사진=전북농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농산물을 홍보하고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 및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롯데마트와 함께 2022년부터 5년째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와 전북농협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철 농산물(복숭아, 수박, 포도)을 판매하게 된다. 전북농협과 전북자치도는 농업인들이 땀 흘려 생산한 고품질 농산물을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매년 대형유통업체 및 수도권 통합판촉행사

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또 전북생생장터·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전북 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를 확대해 농업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김성훈 본부장은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제공해 ‘농심전심’의 뜻 아래 ‘농심에 진심인 든든한 전북농협’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농촌진흥청, 지역 상생 에이드 3종 재출시

건강·지역 상생 동시에 전국 세븐일레븐서 판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30일 ‘지역 상생 에이드(음료) 무설탕(제로슈가)·무가당’ 재출시 제품 3종을 전국 세븐일레븐 매장에 선보였다. 에이드는 국내 육성 품종과 지역특화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으로 ‘건강’, ‘지역 상생’을 동시에 잡은 프리미엄이다. 이번에 재출시 제품은 과일 본연의 맛과 향은 살리고 당류 첨가는 줄이려는 ‘즐거이는 건강 관리(헬스플레저, Healthy Pleasure)’ 소비 경향을 반영했다. 음료 3종은 △세븐셀렉트 명인 딸기 에이드 제로슈가 △세븐셀렉트 제주 천혜향에이드 제로슈가 △세븐셀렉트 달

콤 추황배에이드 무가당이다. 특히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명인 딸기와 제주 천혜향, 국산 추황 배 등 우수한 국내산 원료를 전량 사용함으로써,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 열흘간 지역 상생 에이드를 응원하는 소비자 행사 행사도 진행한다. 가장 좋아하는 에이드를 댓글로 추천하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공식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판매 실적과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효과를 높이기 위해 편의점 판매 자료와 소비자 반응을 분석해 상품성이 높은 지역 농산물을 추가



<사진=농촌진흥청>

발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과 세븐일레븐은 2021년 8월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천혜향과 딸기, 추황 배 등 농산물을

활용한 상생 음료로 10종 이상을 선보여 왔다.

/정소민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 개정

농가 부담 낮추고 임차인 권리 강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업무지침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은 청년농 협의회와 농어민 단체장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청년농업인·경영위기 농가 지원 확대 △비공식 임차인 경

작권과 임차권 보호 강화 △작기 단위 임대 허용 등 농지은행 이용 편의 제고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공사가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매입한 뒤, 청년농업인이 일정 기간 임차해 영농하고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 농가가 농지를 공사에 매각해 부채를 상환하고, 해당 농지를 임차해 영농을 이어간 뒤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환매요율 선택 시점 변경, 고정요율 인하를 통해 농가 부담을 덜었다. 농지은행 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기 단위 임대차 계약 허용 △친환경농업인 우선 배정 △인산 재배 농가 신청 범위 확대 △사용대차계약 철회·환불 기준 마련 등 개선 사항을 적용했다. 이 밖에도 인산을 재배하려는 농업인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농지 임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자와 임차인이 4촌 이내일 때 제

결하는 사용대차계약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철회하면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청년농업인과 경영위기 농가의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농지은행 이용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농지은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주상의, 미래 산업 선도 인력 양성 추진

전북대 지식재산전문 인력양성사업단과 협력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지난 30일 전북대학교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사업단(단장 양윤석)과 지식재산 기반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지역 기업들의 지식재산(IP) 창출 역량을 극대화하고, 미래 산업 선도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업 아이디어 고도화 및 특허 출원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진=전주상공회의소>

진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주상공회의소는 회원사들이 보유한 참신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전문적인 컨설팅을 거쳐 고도화된 특허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주상공회의소 김정태 회장은 “지식 재산 전문가들이 지역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TP 디지털융합센터 ‘개인정보 안전지킴이’ 교육

(재)전북TP 전북디지털융합센터-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전북 개인정보 안전지킴이 교육·컨설팅’을 지난 29일 개최했다. 교육은 개인정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 이해도 향상과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준수 사항 숙지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기관·기업·대학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있는 도민 등이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교육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대응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편 전북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는 가명처리 개요·기법·솔루션 등 가명정보 활용 전반에 대한 교육·실습을 실시 지원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경진원, 중소기업 베트남 진출 도와

현지 연계 단계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하는 ‘2026년 전라 수출컨소시엄사업 중동 대응 과제’ 주관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과제에는 전국에서 총 6개 기관이 주관단체로 선정됐다. 경진원은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TECHFEST 2026과 연계해 국내 중소기업 현지 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9일 전북해외통상거점센터 하노이에서 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KBIZ) 아세안 사무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베트남사무소, 베트남 국가창업지원센터(NSSC) 관계자들과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가기업 모집과

전시관 운영, 제품 시험·인증 지원,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수출상담 연계 등 사업 단계별 지원기관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해외통상거점센터 하노이의 현지 상주 인력이 축적해 온 시장 이해와 기관 협력 기반도 이번 사업 선정과 추진체제 마련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가기업에는 지원기관의 전문성과 현지 네트워크를 연계해 시장정보 제공, 시험·인증 상담, 바이어 발굴 및 수출상담 등 베트남 시장 진출에 필요한 단계별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신규 바이어 발굴과 수출상담, 현지 협력사업 추진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공포

농식품부, 제조·품질기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이하 GMP라 한다)을 국제 수준에 맞게 높여 국내 동물용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해외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을 30일 개정·공포했다. 먼저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국제 수준에 맞게 강화한다. 국제적으로 동물용의약품 분야에서는 제조공정 및 제조시설·장비 검증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GMP에도 해당 기준을 반영해 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기준 강화에 따른 제조시설 정비 등 산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고, 동물용 의약품을 제품 특성에 따라 3개 제형군으로 분류해 주사제부터 우선 적용하는 방식으로 2030년부터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둘째 제품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마련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기존에는 일반 동물용 의약품과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의 2개 분야로만 구분해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원료용 등 6개 분야로 세분화해 제품 종류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셋째,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갱신 제도를 도입한다.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이 GMP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3년마다 재심사하는 갱신 제도를 2027년부터 도입한다. 이번 동물용 의약품 GMP 선진화를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조·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협회 및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동물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 세부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법령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30일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 성공적인 개최 후원금 1억원을 전북은행 본점 8층에서 전달했다.

<사진=전북은행>

전북은행, 전주세계소리축제 후원금 전달

사회적 책임 다하고자 개최 후원금 1억원 마련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30일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 성공적인 개최 후원금 1억원을 전북은행 본점 8층에서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최철 조직위원장, 전북은행 박춘원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세계 각국의 음악적 유산과 교류하며 다양한 공연예술을 선보여 온 대한민국 대표 공연예술축제로 전북은행은 지역의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통해 지역은 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이번 전달식을 마련했다.

/정소민 기자

NH농협손보 전북총국 ‘농기계 사고예방 캠페인’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이 30일 흥덕농협에서 ‘농기계 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은 흥덕농협 조합원에게 차량용 소화기와 LED삼각대, 소형 우산 등을 전달하며 농기계 안전 운전과 특별하게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농협손보는 지난 2012년부터 경찰청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농기계 사고 예방 캠페인을 계속 펼치고 있다. 백영중 조합장은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농기계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농협손보는 트랙터, 콤팩트를 포함한

다양한 기종을 대상으로 농기계 운행이나 농작업 중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농기계종합보험을 판매한다. 전북에서는 정부가 보험료 50%, 지방자치단체가 30% 등을 지원해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전북교육청, 특수학교 대상 심리안정실 조성

4억 9천만 원 투입해 7개교에 맞춤형 공간 확충… 학습권 보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장애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심리 안정 환경조성 사업을 확대한다.

전북교육청은 공사립 특수학교 7개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총 4억 9,000여만 원을 투입해 심리 안정 공간을 조성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2024년 4,548명에서 올해 4,944명으로

로 증가하고,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할 독립된 공간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다.

전북교육청은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과정보 특성을 반영한 공간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교육청은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 연수를 병행해 현장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조성되는 심리 안정 공간과 행동중재 지원이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장애학생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은 공사립 특수학교 7개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총 4억 9,000여만 원을 투입해 심리 안정 공간을 조성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전북교육청>

천호성 전북교육감, 안전사고 예방 당부

폭염 물놀이 안전수칙 강조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여름방학 시기를 맞아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천 교육감은 서한문을 통해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교육청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교육활동의 출발점”이라며 “여름방학을 맞아 안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대응해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한낮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아울러 △구명조끼 착용 △준비운동 철저 △물놀이 금지 구역 출입 금지 등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천 교육감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든든한 안전지킴이가 돼달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법규 준수와 야외 활동 시 안전수칙을 지켜 가족 모두가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업어치기 한판”… 익산서 전국 유도동호인 열전

내달 1~3일까지 개최

전국 유도 동호인이 익산에 모여 뜨거운 한판 승부를 펼친다.

익산시는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익산실내체육관에서 ‘2026 백제왕도 익산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유도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유도회와 익산시유도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선수 2,000여 명이 참가한다. 유치부부터 청년부, 장년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출전해 기량을 겨루고 화합을 다지는 생활

체육 축제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날 본대회에 앞서 익산실내체육관에서는 ‘2026 하계 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도 열렸다.

오늘까지 전국 심판과 지도자 1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심판 규정과 유도 기술 교육 등이 진행된다.

시는 이번 대회 기간동안 숙박과 음식점 이용 등 지역 소비가 늘어나 여름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필 익산시 체육진흥과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전국 각지에서 익산을 찾아주시는 선수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부상



‘2025년 익산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를 앞두고 익산실내체육관에 선수들이 연습하고 있다. <사진=익산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현대, 내달 1일 서울과 95번째 전설매치

설욕전 및 추격 나서

전북현대모터스FC가 선두 FC서울을 홈으로 불러들여 리그 선두 추격에 나선다.

전북현대는 ‘하나은행 K리그1 2026’ 21라운드 FC서울과의 홈경기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내달 1일 오후 7시 30분에 치른다고 밝혔다.

양 팀의 K리그1 통산 95번째 맞대결인 이번 경기에 앞서 전북현대는 서울과의 역대 전적에서 39승 26무 20패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전북현대는 승점 33점으로 리그 2위이며, 선두 FC서울과의 승점 차는 9점

이다. 전북현대는 직전 라운드에서 포항 스틸러스를 2-0으로 꺾었으며, 서울은 울산HD에 패한 바 있다.

양 팀의 올 시즌 첫 맞대결인 지난 7라운드 서울 원정에서는 전북현대가 0-1로 패했다.

구단은 무더운 여름철 홈경기를 맞아 N석 위터캐논과 E·W석 위터 분수터널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수소 셔틀버스가 전주역과 익산역에서 각 5대씩 총 10대 운행되며, 시내버스 1994 노선 12대가 투입된다.

전북현대 이도현 단장은 “선두권 경쟁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경기인 만큼 선수단이 최고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며



<사진=전북현대> “전주성을 찾는 팬들에게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테니스 유망주 김서현 월드주니어대회 출전

전북 테니스 유망주인 김서현(전일중) 선수가 주니어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 출전한다.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는 김서현 선수가 ‘2026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본선’에 참가하기 위해 체코로 30일 출국했다고 밝혔다. 대회는 다음 달 3일부터 7일 동안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와 임원 등 총 6명이 참가하며, 도내 선수로는 김서현이 유일하다. 김서현은 앞서 프랑스에서 열린 ‘오픈 스타드 프랑스’ 14세부 여자단식에서 우승하며 유럽 무대에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전북체육회는 월드스타 육성사업을 통해 김서현 선수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최성민 기자

도문화관광재단 ‘전북 고비살살’ 역량강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9일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전북 고비살살’운영단체 및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 ‘성장+’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고창·김제·남원·무주·부안·순창·임실·정읍·진안 등 도내 9개 시군 지자체 및 운영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 이해도와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계자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순서는 운영단체별 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문화예술 전문가 특강 △참여자 네트워킹 △상반기 운영 실적 공유 △하반기 사업 운영방향 안내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문화예술 전문가 특강에서는 정민룡 광주 북구문화의집 관장이 우수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전략을 공유하고 현장 중

심의 실무 노하우를 전달했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지역의 특성과 도민의 문화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민 문화향유 증진 사업이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특별자치도, 9개 시·군이 주최하며, 지역문화진흥원과 재단, 도내 지역별 기초 수행기관이 함께 주관한다.

‘전북 고비살살: 예술이 가깝네’는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북형 문화브랜드 사업이다. 하반기 ‘전북 고비살살: 예술이 가깝네’는 1·3주 수요일 중 1회와 마지막 주 주간 중 1회로 매월 총 2회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문화팀에 문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

시원하게 지내기



샤워 자주하기

외출시 햇볕 차단하기

헐렁하고 가벼운옷 입기

물 자주 마시기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수분 섭취하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더운시간대 휴식하기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 조절하기

군산소방서, 신임 의용소방대원 4명 임명… ‘안전 파수꾼’ 출발

군산소방서(서장 김상곤)는 지역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할 신임 의용소방대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여식에는 군산소방서장과 신임 대원 소속 의용소방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의용소방대의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을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임명된 신임 의용소방대원은 △대여 여성의용소방대 임은숙 대원 △성산 남성의용소방대 박경석 대원 △군산남성의용소방대 김성현 대원 △서수남성의용소방대 오기수 대원이다.

신임 대원들은 앞으로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 활동을 보조하고, 화재 예방 홍보와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캠페인,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역 안전키퍼이로 활동하게 된다.

김상곤 군산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는 지역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안전을 실천하는 든든한 동반자”라며 “신임 대원들도 소속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민관협력 협의체’ 시민위원 공개 모집

민선9기 익산시가 ‘시민이 정책을 만들고 행정이 함께 실행하는 시정’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

익산시는 내달 4일까지 민선9기 핵심 정책을 함께 이끌어 갈 ‘익산시 민관협력 협의체’ 시민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민선9기 시정철학인 ‘시민이 주인입니다’를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 중심의 정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전문가, 기관·단체가 정책 기획 단계부터 현안 해결까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협의체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시민의 다양한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의 전문성을 정책에 담아 실행력을 높이는 정책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지역의 미래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하며, 행정과 함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어가는 정책 동행자 역할을 맡게 된다.

접수는 내달 4일 오후 6시까지 협의체별 담당부서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내달 6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 요강과 신청 방법은 익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협의체별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교통봉사대 ‘정읍지대’ 장학금 100만원 기탁

사람실은 교통봉사대 정읍지대(지대장 안웅)가 지난 28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정읍지대는 2019년부터 해마다 10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역 학생들의 성장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안웅 지대장은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봉사하고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이사장은 “지역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지역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 장점마을, 생태축 복원 완료

57억 투입해 기억의 숲 습지 조성… 생태 치유 교육의 장으로 새단장

국내 첫 환경오염 피해 역학인정 사례로 깊은 충격과 아픔을 안겼던 익산시 합라면 장점마을이 자연과 인간이 함께 숨쉬는 대한민국 대표 생태 복원의 상징이자 치유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익산시는 과거 집단 암 발병 등 심각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했던 옛 비료공장 부지 일원(3만 700㎡)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57억 원을 투입해 추진해 온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에서 단순히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1차원적 복구를 넘어, 주민들의 깊은 아픔을 보듬고 생태계 건강성을 완벽히 회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살아있는 환경 교육 거점을 완성하겠다

는 의지를 담아냈다.

장점마을은 과거 비료공장이 퇴비용 연초박을 불법 가열·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해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리고 14명이 사망하는 비극을 겪은 곳이다. 주민들의 눈물 어린 투쟁 끝에 2019년 11월 환경부가 비특이성 질환에 대한 환경오염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이후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매립 폐기물 전면 제거, 토양 정화, 주민 의료지원 조례 제정 등 피해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나아가 상처의 근원지였던 옛 금강농산 부지를 시가 전격 매입한 뒤 생태축 복원 공사를 단행했다.

시는 환경오염으로 완전히 단절됐던 합라산과 주변 농경지, 하천을 잇는 생태 네트워크를 다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죽어있던 공장 터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습지와 역사를 기억하는

‘기억의 숲’을 비롯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생태탐방로와 학습공간을 촘촘히 조성해 치유와 환경 교육이 어우러진 복합 생태 공간을 꾸몄다.

특히 외래종을 배제하고 지역 자생식물을 중심으로 식생을 복원에 야생동물이 안정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서식환경을 정착시켰다. 시는 향후 지속적인 생태 모니터링과 유지관리를 통해 생물 서식지를 더욱 넓혀가는 한편, 이 공간을 탄소흡수원 및 기후변화 대응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조남희 익산시 환경정책과장은 “합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준공은 오랜 세월 눈물 흘린 주민들의 아픔을 행정이 함께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는 위대한 출발점”이라며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생생한 환경 교육장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환경 치유 모델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K-씨푸드 산업 육성 ‘총력’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조성 위한 협력 방안 논의

군산시가 30일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입주기업 등과 함께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이하 수산식품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글로벌 K-씨푸드 산업 육성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수산식품단지 조성 주관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와 군산시 수산산업과를 비롯해 ㈜풀무원 등 김산업 입주기업 5개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내 수출형 K-GIM(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부 ‘김산업진흥구역’ 추가

지정 공모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성화업종’ 지정 추진을 위한 기관·기업 간 협력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지역특성화업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하는 핵심 육성업종으로, 선정될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확장이 확정된 가운데 향후 사업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기관과 기업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시는 지난 22일 새만금개발청 고시를 통해 수산식품단지 규모를 기존 4만 평에서 8만 평으로 확대하는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이는 1단계 부지 분양 완료와 높은 기업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확장 부지는 기존 단지와 인접한 오식도 동 1127번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단계에는 스마트 수산가공센터와 해수 인·배수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이 진행되고 있으며, 마른길 가공공장 등 민간기업 투자도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풀무원은 지난 5월 공장 건립에 착수해 현재 기반공사를 진행 중이며, 다른 입주기업들도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시는 추가 확보한 부지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는 한편, 김산업진흥구역과 지역특성화업종 지정에도 적극 대응해 생산·연구(R&D)·가공·유통이 집적된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탐마루 쌀’ 즉석밥으로 전국 공략

하림 ‘익산 백미밥’ 전국 이마트 동시 출격

기름진 호남평야의 중심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로 생산된 익산시 대표 명품 쌀이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인 하림과 손잡고 전국 소비자들의 식탁을 전격 공략한다.

익산시는 지역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탐마루’ 쌀을 100% 원재료로 사용한 하림의 프리미엄 신제품 ‘더미식 익산 백미밥’이 전국 150여 개 이마트 매장에 동시 출시되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시는 하림 측과 수개월간 익산 탐마루 브랜드 사용 승인 및 포장 디자인 협의를 수차례 긴밀하게 거친 끝에, 전국 소비자들에게 익산 쌀의 독보적인 가치를 선보이게 됐다.



<사진=익산시>

즉석밥의 핵심 원료로 낙점된 ‘탐마루 쌀’은 엄격한 품질관리 매뉴얼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과한 고품질 쌀이다.

풍부한 일조량과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 품미가 깊고 찰기가 뛰어난 익산 쌀의 우수성은 높은 수준의 원재료 경쟁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더미식 익산 백미밥은 익산 소재4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하림의 첨단 식품 생산 기지인 ‘퍼스트키친’

에서 전량 생산된다.

다른 첨가물 없이 오직 100% 익산 탐마루 쌀과 물만을 사용해 밥 본연의 깊은 풍미를 그대로 살려냈다.

특히 첨단 무균화 생산 라인을 기반으로 냉수가 아닌 온수로 천천히 뜸을 들이는 차별화된 공정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용기 포장 필름과 밥 사이에 독자적인 공기층을 형성, 밥알 하나하나가 눌리지 않고 살아있는 탱글한 식감을 완성해 냈다.

하림은 이 같은 지역 농가와의 단단한 상생을 바탕으로 원재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에게 건강한 한 끼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익산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인 탐마루의 우수성을 전국에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내달 1일부터 24개소 대상

해제된다.

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제도기간을 운영한다.

제도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 1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 시 '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택시 승차대는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연문화 확산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는 내달 1일부터 관내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으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택시 승차대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대상은 관내 택시 승차대 24개소이며, 지정 범위는 택시 승차대 경계 또는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이다.

또한 앞으로 신설되는 택시 승차대는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되며, 폐쇄되는 승차대는 금연구역에서도 자동

정읍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정읍시가 오는 12월 14일까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정책 수립과 행정업무의 정확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진행된다.		
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조사로 나눠 실시한다. 비대면 조사는 9월 7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스마트폰 ‘정부24’ 앱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방문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관할 이·동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맡는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직접 찾아 오는 11월 9일까지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한다.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사진=정읍시>		
아동이나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다. 해당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다더라 방문조사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의를 높이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라며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 강화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7월 30일 군산시 보호회관에서 전북청년미래센터, 군산시 희망복지계(가족돌봄청년 지원), 복지기획계, 군산교육지원청, 읍·면·동 아동복지 및 맞춤형복지 담당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족 구성원의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돌봄 부담을 떠안고 있는 가족돌봄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가족돌봄 청년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희망복지계와의 연계를 통해 아동기부터 청년기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참석 기관들은 가족돌봄아동과 가족돌봄청년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의료,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지는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이어 군산시 드림스타트와 전북청년미래센터는 가족돌봄아동의 조기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영란 아동정책과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가족돌봄아동과 가족돌봄청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내년도 마을 사업 주민 손으로”		
9개 지역서 주민 투표		
정읍시가 31일 수성동을 시작으로 내달 31일까지 9개 지역에서 주민총회를 열어 내년도 지역 특화사업을 주민 투표로 결정한다.		
특히 올해는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본격 실시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주민이 자치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총회는 지역 주민들이 마을 현안과 자치계획을 함께 논의하고, 내년도에 추진할 지역 특화사업의 우선순위를 표결로 확정하는 주민 공론의 장이다.		
시는 2021년 내장상동과 수성동을 시작으로 주민자치회를 단계적으로 확대했으며, 현재 9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각 주민자치회는 올해 초부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맞춤형 상담을 거쳐 지역에 필요한 의제를 발굴해 왔다.		
주민총회에서는 이 과정에서 마련된 사업 후보를 공유한 뒤 현장투표와 사전투표를 통해 최종 추진 사업을 결정한다.		
이학수 시장은 “내년 마을사업을 직접 결정하는 뜻깊은 자리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재난 예방 선제 대응 나서 2(題)

남원시 교량·터널 41개 시설물 점검 돌입

남원시는 시민 안전과 시설물 성능 확보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시설물 정기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투입해 2026년 7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며,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터널 1개소와 교량 40개소 등 총 41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 동안 남원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재난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교량과 터널을 제2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해 관리해 왔다.

이번 시설물 정기점검은 결함과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체계적인 보수·보강으로 구조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순창군 용결산 하늘길 8월 한 달 임시휴장

순창군은 대표 관광명소인 용결산 자연휴양림 하늘길을 오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 임시 휴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휴장은 하늘길 목재데크의 오일스테인 도포와 그늘막 설치 등 시설 보완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공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됐다.

용결산 하늘길은 해발 646m 용결산 암벽을 따라 조성된 잔도 형태의 데크길로 연간 십만 명이 찾는 순창군의 대표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개장 이후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목재데크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특히 여름철 강한 자외선과 집중호우에 노출되는 시설 특성상 목재 보호를 위

한 정기적인 오일스테인 도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군은 이번 휴장 기간 동안 하늘길 전 구간의 목재데크에 오일스테인을 도포해 목재의 갈라짐과 뒤틀림, 부식을 방지하고 시설의 내구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늘막을 설치해 폭염 속에서도 휴양객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늘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난간, 계단 등 안전시설 전반에 대한 일제 점검과 보수 작업도 병행해 시설 안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휴장 기간 중에는 하늘길 구간의 출입이 전면 통제되며, 군은 휴양림 입구와 주요 진입로에 휴장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군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휴장 사실을 사전에 적극 알려 방문객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사진=순창군>

순창·담양 농업인, 고향사랑기부 '상생'

농업인학습단체 상호 기탁 농업 교류·협력 확대 다짐

순창군 농업인학습단체가 담양군 농업인학습단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을 통해 지역 간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상생협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순창군과 담양군 농업인학습단체는 지난 2월 농업 분야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꾸준한 교류와 협력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29일 담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양 지역 농업인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본부 회원들이 참여해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

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탁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기탁을 계기로 농업 분야 협력은 물론 지역 간 상생과 우호 증진을 위한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함께했다. 행사에는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을 비롯해 양 지역 농촌지도자연구연합회, 생활개선연구연합회, 4-H본부 임원들이 참석해 두 지역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경석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은 “앞으로도 담양군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며 지역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고향사랑기부 문화 확산에도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농민회, 이화여자대학교 농촌봉사활동 환영식

남원시 농민회는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 3층 강당에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농촌봉사활동 환영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농활 일정의 시작을 알렸다.

환영식에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과 학교 관계자, 남원시 농민회,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약 120여명의 인원이 참석해 학생들을 환영하고 안전하고 뜻깊은 농촌봉사활동을 응원했으며, 농활 일정과 마을 대표자 소개, 농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해 참가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다.

참석자들은 기념촬영을 마친 후 각 마을로 이동해 주생면, 금지면, 덕과면,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 일대에서 농가 일손돕기를 비롯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세미나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잔치, 마을생활 체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농업·농촌의 가치와 공동체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공예 브랜드 ‘공예완주’ 전국 무대 선다

완주문화관광재단(이사장 유희태)이 국내 최대 규모의 공예 전문 박람회인 ‘2026 공예트렌드페어’ 매개기관 부문에 참가 신청을 완료하며, 완주 공예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재단은 이번 박람회에서 ‘공예완주(完走)’를 전시 브랜드로, ‘새로운 전통, 오래된 미래’를 주제로 한지·목공·도자를 중심으로 완주 공예의 정체성과 현대적 가치를 선보일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공예트렌드페어는 오는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 A홀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예 전문 박람회다.

이번 전시에는 완주공예인협회의 추천을 받은 지역 공예작가들이 참여해 전통 목가구와 한지를 활용한 가구·조명, 도자 오브제 등을 선보인다. 전통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통해 완주 공예의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소개하고, 작품 판매와 판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생활지원사 감염병 예방 역량강화

완주군이 어르신 일상 돌봄의 최전선에 있는 생활지원사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역량 강화에 나섰다.

30일 완주군은 관내 사회복지센터 3개소의 생활지원사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생활지원사 대상 감염병 예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 가정을 수시로 방문하는 생활지원사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높여 어르신들과 종사자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감염병 전파 개요 △봄·여름·가을철 진드기·농작업 관련 감염병 △감기·독감·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관리 방법 △에트럴 식중독 예방 △올바른 손 씻기 △예방접종 및 병원진료 시 알려야 할 정보 등에 대해 다뤘다.

또한 돌봄 노동으로 지친 생활지원사들의 정서적 치유를 위한 웃음치료 프로그램도 마련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장을 찾은 유희태 완주군수는 “어르신들의 일상 최전점에서 헌신하는 생활지원사분들은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의 가장 중요한 방파제”라며 “이번 교육이 감염병 현장의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군에서도 생활지원사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유희태 완주군수, 하천 불법점용 현장점검

동상·운주 계곡 현장 방문 적발 95곳 중 85곳 정비 완료

유희태 완주군수가 폭염과 행락철이 겹친 지난 28일과 29일 양일간 관내 동상면과 운주면 계곡을 직접 찾아 하천 불법점용 실태를 점검하고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완주군은 하천 불법점용 사항위 적발 건수 95개소 중 85개소에 대한 정비를 마쳤으며, 유 군수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나머지 10개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 운영 실태와 물놀이객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현장에서 유 군수는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불법시설 설치 현황과 하천 점용 실태를 확인하며 하천 정상화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완주군>

유 군수는 “하천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공간인 만큼 불법시설과 불법 상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은 단속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이

용 방안을 만드는 것”이라며, “불법 요소는 철저히 제거하고, 합법화된 구역에서 주민 생계와 지역경제를 고려한 합법적 운영 방안도 장기적으로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지리산 뱀사골 교통혼잡 잡는다

10월까지 특별교통지도 실시 집중 인력 배치 장기주차 차단

남원시는 지리산 국립공원 뱀사골 일대의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해 장기간에 걸친 교통지도에 나선다. 여름 휴가철은 물론 가을 단풍철까지 방문객이 꾸준히 몰리는 만큼, 차량 정체와 불법주차장조 인한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남원시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산내면 뱀사골 일대에서 특별교통지도를 실시한다. 특히 방문객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는 인력을 집중 배치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교통지도는 남원시청 교통과, 남원경찰서,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3개의 기관이 협력해 현장 대응에 나선다. 남원시청 교통과는 산내 토비스콘도부터 반선 시외버스 정류장까지 구간을, 남원경찰서는 반선시외버스터미널부터 달궁까지 구간을 각각 책임지고 관리하며,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국립공원 구역 내 현장 협조를 담당한다.

각 기관은 담당 구간별로 상시 순찰 체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단속차량을

활용한 집중 점검을 병행해 불법 주차차를 예방하고 차량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남원시는 아울러 반선주차장 등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방문객들이 지정된 주차 공간을 이용하도록 하며, 전년과 달라진 점은 공영주차장 내 소위 알박기 장기 주차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차량 높이 제한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장기간 진행되는 만큼 방문객들도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AI 지도사 양성…경쟁력 높인다

창업·융합지도사 양성 활발 군민·소상공인 실전교육 운영

완주군이 군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AI)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해 지도사들을 대거 배출했다.

군은 운영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취·실생활과 창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인공지능(AI)&디지털 실전학교’를 운영했다.

교육은 과정별 8~16차시로 진행됐으

며, 일반 군민과 학부모를 위한 기초·활용 과정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 자격증 과정이 내실 있게 전개됐다.

특히 ‘에이아이(AI) 융합지도사’와 ‘에이아이(AI) 창업지도사’ 민간자격증 취득과 연계해 운영한 전문 지도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뒀다.

융합지도사 과정은 신청자 10명 중 8명이 자격증을 취득해 80%의 취득률을 기록했으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창업지도사 과정은 신청자 12명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일반 군민과 학부모를 타깃으로 한

‘에이아이(AI) 마케팅 실생활용’, ‘에이아이(AI)활용 마스터’, ‘에이아이(AI) 활용교육’ 과정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 편집, 짧은 영상(숏폼) 및 콘텐츠 제작, 온라인 마케팅 등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습 중심의 교육을 진행해 수강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이은지 교육정책과장은 “인공지능은 이제 특정 전문가만의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활용해야 하는 필수 역량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삼례문화예술촌, 완주 정작 윤대라 작가 기획전

수묵·자개·청화도자 작품 전시 고양이 ‘양생원’ 통해 완주 표현

완주군이 삼례문화예술촌 예술인마을Ⅱ 개관을 기념해 한국화가 윤대라의 기획전 ‘양생원, 완주하다’를 열고 있다.

전통 동양화의 필묵 정신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매체 확장과 서사를 구축해 온 중견 한국화가 윤대라 작가는 지난 2014년 삶의 터전을 완주로 옮겼다. 이후 작가는 완주의 자연과 일상에서 얻은 생명력을 작품 세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왔다.

이번 전시의 제목인 ‘양생원, 완주하다’는 작가가 완주(完州)에서 인연을 맺은 반려묘 ‘양생원’을 매개로 삶과 예술의 진정한 완주(完走)를 향해 나

아가는 작가적 의지를 담고 있다. 완주(完州)라는 공간적 서사와 예술적 완주(完走)의 이중적 은유를 통해 밀도 높은 예술적 에너지를 전한다.

이번 전시는 절제된 필획으로 본질을 포착하는 ‘수묵 연작’과 세월의 궤적을 품은 자개 위에 대답한 상상력을 덧입힌 ‘자개 연작’, 그리고 청화도자 작업까지 아우르며 관람객에게 시각적 풍성함을 선사한다.

완주의 생명력이 동시대 현대미술로 피어나는 기획전은 10월 20일까지 삼례문화예술촌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서진순 문화역사과장은 “이 공간이 앞으로 완주의 예술을 소개하고 지역민을 이어주는 거점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지회장배 한궁대회 ‘성황’

11개 읍면 대표 250명 참가 어르신 생활체육 자리매김

순창군은 지난 29일 순창군 장애인체육관에서 제5회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장배 한궁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순창군 11개 읍·면 남녀 대표선수과 응원단, 내빈 등 25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고, 지역 어르신들이 서로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생활밀착시설 사물주소판 409개 설치

버스정류장·무더위쉼터 등 방문객 시설 이용 편의 향상

남원시는 시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관내 시설에 사물주소판 409개를 순차적으로 설치했다. 설치 대상은 버스정류장, 졸음쉼터, 비상소화장치, 무더위쉼터, 민방위대피시설, 어린이 놀이시설이다.

사물주소는 건물이 아닌 시설이나 장소에 부여하는 주소정보다. 버스정류장 등 건물번호가 없는 장소에도 고유한 주소를 부여해 정확한 위치를 표시한다. 시민은 사물주소판에 적힌 정보를 통해 현재 위치와 시설 위치

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물주소판 설치로 범죄·재난 등 긴급상황 신고 시 현장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과 방문객의 시설물 위치 확인도 한층 쉬워져 공공시설 이용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사물주소판은 시민이 낮은 장소에서도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돕는 생활밀착형 주소시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설치로 류장 등 건물번호가 없는 장소에도 고유한 주소를 부여해 정확한 위치를 표시한다. 시민은 사물주소판에 적힌 정보를 통해 현재 위치와 시설 위치

/남원=정하복 기자



농협은행 군산시지부 장학금 300만원 기탁

NH농협은행 군산시지부(지부장 김범석)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장학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30일 열린 기탁식에서 김범석 NH농협은행 군산시지부장은 “지역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장학금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관 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재준 군산시장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다양한 교육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NH농협은행 군산시지부에서는 지난해 기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포함한 지역의 각종 사회단체와 지역의 학교 등 30여 개소에 총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금융기관의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새일센터 수료생 정리·수납 재능기부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정읍새일센터)가 정읍시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지난 28일과 29일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정리·수납 재능기부를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는 ‘생활공간건설팀 전문가과정’ 직업교육훈련 수료생들이 결성한 공동체 ‘정리해드림’이 참여했다. 정읍시지역자활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발굴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협력했다.

‘정리해드림’은 해당 교육과정 수료생 가운데 수납전문가 1급 자격을 취득한 이들로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대상 가정의 생활환경과 이동 동선을 살펴 거실과 침실, 옷장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돈했다. 불필요한 물품을 정리한 뒤 생활 습관에 맞는 수납 방법도 안내해 대상자가 스스로 정돈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정읍=김정인 기자

굿네이버스, 이주배경아동 인식개선 캠페인

편견 없는 환경 조성 앞장

굿네이버스 전북전주1지부가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굿네이버스 전북전주1지부는 전북특별자치도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이용객 113명을 대상으로 ‘다다다(多多多) - 다양한 문화, 다가가는 마음, 다 함께 성장’ 캠페인을 30일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다양한 문화와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이

주배경아동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스티커 판별 활동과 정의 및 유형을 안내하는 홍보 포스터 전시가 진행됐다.

아울러 미니 물렛 O·X 퀴즈를 통해 아동권리 이해도를 높이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최은희 굿네이버스 전북전주1지부장은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중은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편견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부안군지회, 시원한 생수 나눔

고향사랑 기부제도 홍보

한국자유총연맹 부안군지회는 30일 오전 10시부터 12시 부안터미널 사거리 일원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원한 얼음물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연일 기습을 부리는 폭염 속에서 주민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돕는 한편,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 캐릭터인 ‘봉봉이’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도 함께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자유총연맹 부안군지회 소속 회원 20여 명이 직접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참여 회원들은 유동 인구가 많은 부안터미널 사거리 주변의 투쟁플레이스 앞과 선인약국 앞 등 총 2개소에 거점을 마련했다.

이들은 지역 내 사회단체와 유관기관의 따뜻한 후원 및 기부를 통해 마련된 시원한 얼음물을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직접 건네며 안부를 살폈다.

/부안=신상수 기자



남원 운봉읍지사협-농가주부회, 삼계탕 나눔

남원시 운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농가주부회가 30일 관내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삼계탕 특식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운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인 ‘후원 밀반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의 후원으로 매월 2회 밀반찬을 지원하고, 연 4회 계절 특식을

제공하며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있다. 특히 밀반찬과 계절 특식 지원은 농가주부회, 생활개선회, 의용소방대, 새마을부녀회 등 4개 단체가 순번을 정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7월 특식 나눔은 농가주부회가 맡아 취약계층 40가구에 여름철 건강한 보양을 위한 삼계탕을 직접 조리·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고창로타리클럽, 장애인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

삼계탕 나눔 행사 진행

고창군장애인복지관(관장 최혜성)이 복지관 식당에서 지역 장애인에게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고창로타리클럽(회장 강성준)의 삼계탕 후원과 전북시군 공무원노조연맹의 성금(100만원) 기탁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사회 따뜻한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보

여주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어 진행된 행운 뽑기 이벤트는 이용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진행되며 행사에 활기를 더했다.

최혜성 고창군장애인복지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 동진면 새마을부녀회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 기탁

부안군은 동진면 새마을부녀회 한윤자 회장과 회원 일동이 지역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봉사해 온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부안의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에 힘을 보태고자 뜻을 모아 마련했다.

한윤자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부안에 도움이 되는 뜻깊은 일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해 주신 한윤자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은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지역발전 사업에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보건소 '생명 나누기 헌혈 행사'

김제시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김제시청 종합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생명 나누기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협력해 진행됐으며, 혈액 수급의 중요성과 생명 구호를 위한 기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헌혈을 통한 사회적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헌혈자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참여를 독려하는 프로그램도 이뤄졌다.

헌혈 행사에 참여한 시민은 “작은 정성이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헌혈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은주 보건소장 직무대리는 “여름철은 혈액은행에 혈액이 가장 부족할 때다. 장마철과 폭염, 여름휴가 등으로 헌혈자가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정기적인 헌혈 캠페인을 통해 혈액 수급 안정화와 헌혈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폭염 속 에너지 절약 방법

에어컨 작동시 최소 2시간마다 1회 (10분이상) 환기하기

전기사용이 많은 오후2~5시 전기사용 줄이기

실내 적정 온도 26도

커튼과 블라인드로 직사광선 차단하기

〈一事一言〉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편의성’ 아닌 ‘생존권’의 문제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깊은 밤, 지방 소도시에서 어린아이가 고열에 시달리거나 어르신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 어떻게 되는가. 골든타임 앞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비참하다. 응급실을 찾아 해매는 ‘응급실 핑퐁’과 필수 의료 인프라의 붕괴는 이제 외딴 섬이나 산간 오지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지방이 마주한 생존의 문제다.

최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를 비롯한 도내 상공업체가 정부와 국회, 대통령실을 향해 “국립의화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을 당초 약속대로 남원에 조속히 설립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 일각에서 국립의전원 입지를 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류가 감지되자, 지역 생존권과 공공의료 수호를 위해 전면에 나선 것이다. 이번 상공계의 촉구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목소리가 아니다. 국가 정책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묻는 질타이자 절박한 호소다.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국립의전원은 어느 지역이 더 편리한가를 따지는 사업이 아니라, 의료 인력이 가장 필요한 곳에 공공 의료 기반을 세우기 위한 국가사업이다”라고 강조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관통한 지적이다.

국립의전원 설립은 수도권의 접근 편의성이나 행정 효율성,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일차원적 잣대로 평가할 사안이 아니다. 수도권과 대도시는 이미 양질의 의료 인력과 최첨단 병원이 차고 넘친다. 반면 지방은 의사가 없어 응급실 문을 닫고 필수의료 인프라가 뿌리째 흔들린다. 의료 인력이 가장 절실한 곳, 공공의료 사각지대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점에 국립의전원이 들어서는 것이 공공성과 국정의 근본 목적에 부합한다.

이는 ‘정책 일관성’과 ‘국가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다. 남원 국립의전원은 과거 서남대 의대 폐교에 따른 후속 대책이자, 정부가 전북도민과 남

원시민에게 공언했던 약속이다. 남원시와 지역사회는 이미 부지 확보를 마치고 행정 절차를 정비하며 오랫동안 국회 입법만을 기다려왔다. 이제 와서 정치적 계산이나 타 지역 이해관계에 밀려 당초 약속을 뒤엎거나 입지를 변경하려 한다면, 정부 스스로 국정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일이자 전북도민을 기만하는 처사다.

남원은 전북 동부권은 물론, 경남과 경북 서부권을 아우르는 영호남 접경지역의 중심이다. 지리적으로 의료 취약지가 밀집한 이 지역에 국립의전원이 들어선다면 지리산 권역 전체의 공공의료망을 바꿀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 온 ‘진정한 지방시대’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실체적 모범 답안이다.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투쟁은 비단 남원시민만의 일도, 상공업계만의 과제도 아니다. 정치적 견해나 이해관계를 떠나 전북의 정치인, 지자체

장, 경제인, 180만 전북도민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로 단결해야 할 골든타임이다.

여야 정치권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의전원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지자체와 경제계는 논리적 정당성을 공고히 하고, 도민들은 단합된 여론의 파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단 하나의 대열로 뭉치지 않는다면 정당한 권익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의료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자 생존권이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불평등은 끝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편의성’이라는 명분 뒤에 숨지 말고, 의료 인력이 가장 필요한 곳에 공공의료 기틀을 세우라는 전북도민의 엄중한 명령을 직시해야 한다. 전북의 정치·경제·시민사회가 하나로 뭉쳐 외치는 정당한 요구가 결실을 볼 때까지 우리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사설

정보통신 유지관리제도, 이름만 남아선 안 된다

정보통신 유지관리제도는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비를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성과 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눈에 보이지 않는 통신망은 오늘날 전기·소방시설 못지않게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기반시설이다.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장애는 물론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제도의 취지와 거리가 멀다. 일부 업체에서 기술자를 실제 근무시키지 않고 이름만 빌려 선임하는 이른바 ‘명의장사’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류상으로는 유지관리자가 선임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전문기술자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지관리제도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이는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기만 행위에 가깝다.

정보통신 설비는 한 번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시설이 아니다.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 정비가 이뤄져야 장애를 막을 수 있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전문기술자의 역할은 단순히 서류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책임지는 데 있다. 따라서 유지관리자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제도는 겉핥기만 남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편법이 성실하게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들까지 피해자로 만든다는 점이다. 정상적으로 기술자를 고용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업체는 그만큼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반면 명의만 빌려 운영하는 업체가 시장에서 버젓이 활동한다면 공정한 경쟁은 불가능하다. 결국 시장 질서는 무너지고 제도의 신뢰도 함께 흔들리게 된다.

정보통신 유지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기술자가 실제 현장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이름만 등록된 관리자가 아니라 현장을 지키는 관리자가 있어야 제도의 존재 이유도 살아난다.

정부와 행정기관도 이제는 형식적인 선임 여부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명의대여와 같은 편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좋은 제도는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보통신 유지관리제도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로 자리 잡을 것인지, 아니면 이름만 남은 제도로 전락할 것인지는 지금의 관리와 감독에 달려 있다.

기고

별교의 들녘에서 전북의 호남평야까지: 쌀에 새겨진 시대의 지문



대하소설 『태백산맥』을 관통하는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논’과 ‘쌀’이다. 해방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

중들에게 논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다. 소설 속 인물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토지개혁의 열망은, 결국 내 논에서 난 쌀로 내 자식의 배를 불리고 싶다는 가장 원초적인 갈망이었다.

소설의 배경인 별교의 들녘은 소작농들의 눈물로 다져진 땅이다. 지주들에게 수탈당하면서도 흙을 놓지 못했던 농민들에게 쌀은 곧 권력이었다. 소설 속에서 쌀밥 한 그릇을 마음편히 먹는 행위는 계급적 우월함의 상징이었고, 소작인들에게는 평생 바쳐 도달하고 싶은 소박한 꿈이었다. 쌀 한 알에는 소설 속 민중들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더 나은 삶을 향한 집념이 고스란히 각인되어 있다.

이러한 쌀의 의미는 오늘날 ‘품종의 가치’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양

의 확보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떤 품질의 쌀을 생산하여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느냐가 핵심이 되었다. 그 중심에 전북 쌀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신동진’이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신동진이라는 이름이 갖는 무게감은 소설 속 대지주가 가졌던 수만 석의 곡기(穀氣)보다 견고하다.

2025년 자료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는 RPC(미곡종합처리장) 브랜드 쌀 162개 중 신동진 품종이 83개로 압도적인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특히 전북의 주요 곡창지대에서는 신동진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브랜드가 49개에 달하고 브랜드 가치는 2조 4천억 원으로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병해충의 위협은 이 견고한 성채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2025년 말, 농림축산식품부의 보급종 중단 논의로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전북자치도의 끈질긴 노력을 통해 2027년까지 정부 보급종 공급 유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단순히 품종 하나를 지킨 것이 아니라, 소설 속 농민들이 지키고자 했던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곡식’에 대한 주권을 지켜낸 현대적 승리라 할 수 있다. 이제 전북 쌀은 신동진의 영광을 넘어 ‘신동진1’이라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10여 차례 식미평가회에서 신동진1의 뛰어난 맛과 품질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이 품종은 기존 신동진의 우수한 식감을 유지하면서도, 농민들을 괴롭혔던 병해충 저항성과 급변하는 기후에 견디는 내재해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소설 속 농민들이 가뭄과 홍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하늘만 바라봐야 했다면, 오늘날의 농민들은 과학적으로 육성된 신동진1을 통해 안정적인 농가 소득 증대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신동진1 품종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국립식량과학원과 공동으로 종자 안전생산 재배 매뉴얼 개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품

종의 세대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북 쌀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대한 여정이다.

과거의 쌀이 죽음과 맛바꾼 ‘투쟁의 산물’이었다면, 오늘날 전북 쌀은 과학기술과 농업인의 정성이 결합된 ‘상생의 결실’이다. 2026년 뜨거운 대양 아래서 고개를 숙여가는 벼 포기들은 우리에게 말한다. 시대는 변하고 품종은 진화하지만, 쌀 한 알에 담긴 농민의 진심과 그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다.

『태백산맥』에서 별교의 쌀은 단순한 식량을 넘어 민중의 생존과 역사의 소용돌이를 관통하는 상징이었다. 오늘날 전북특별자치도가 신동진1을 통해 도약하려는 의지는 『태백산맥』이 보여준 끈질긴 생명력의 현대적 발현이다. 우리는 이 새로운 쌀을 통해 과거의 시련을 이겨내고, 전북 쌀의 위대한 가치를 알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할 것이다. 신동진1이 차려낸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이 시대의 농민과 농업 관계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지방농업연구사 이인석

오늘의시

7월 / 오세영

바다는 무녀(巫女)
휘말리는 치마폭
바다는 광녀(狂女)
산발(散髮)한 머리칼
바다는 처녀(處女)
푸르른 이마
바다는 희녀(戲女)
꿈꾸는 눈
7월이 오면 바다로 가고 싶어라
바다에 가서
미친 여인의 설레는 가슴에
안기고 싶어라
바다는 짐승
눈에 비친 푸른 그림자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윤관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사 010-8641-7942	무주지사 010-6411-0835	부안지사 010-7247-3947
종양지사 010-9678-4271	남원지사 010-2285-3987	임실지사 010-8642-6502	고창지사 010-2258-3734
안무지사 010-8640-6805	익산지사 010-8560-3075	진안지사 010-2439-1721	완주지사 010-3672-0308
발백지사 010-3015-4791	김제지사 010-4572-6112	장수지사 010-8628-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사 010-2800-2934	순창지사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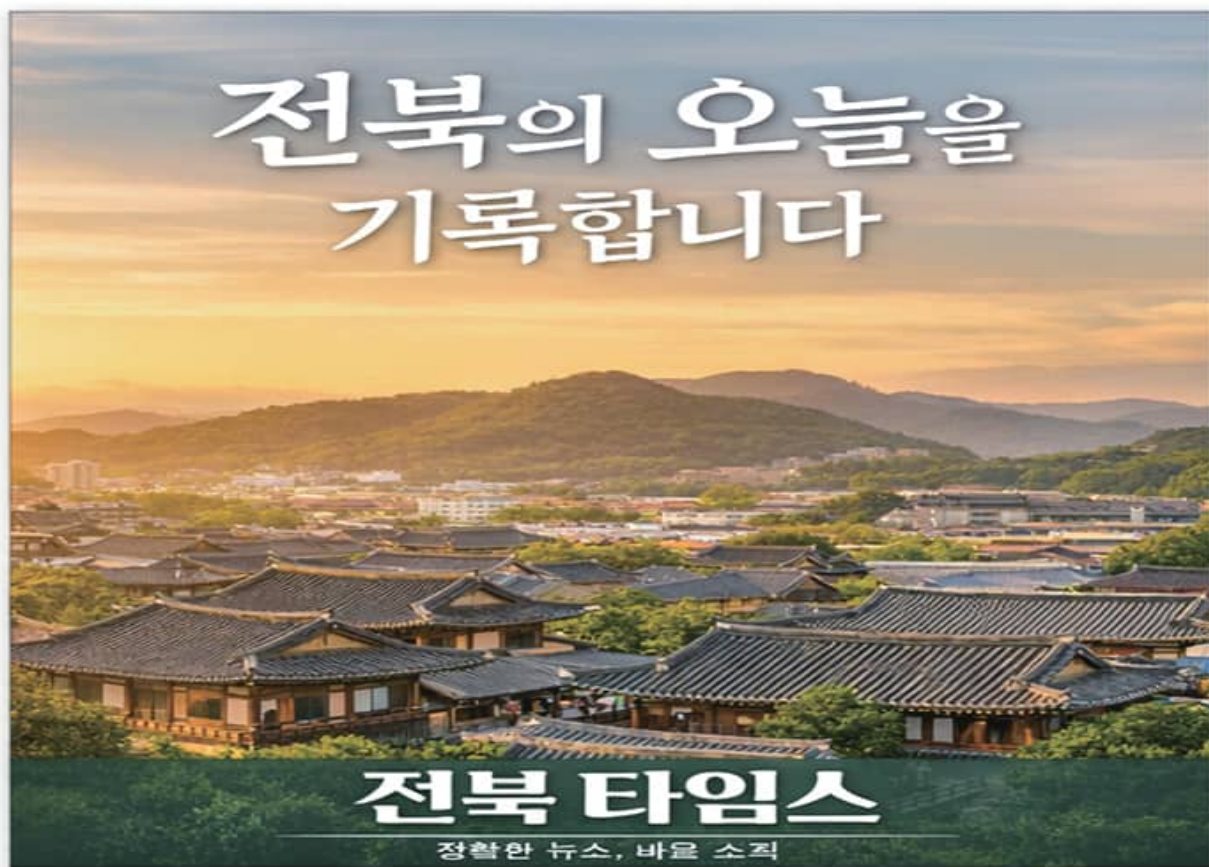
전북타임스와 함께 하세요 !



광고문의 환영합니다

전화 063-282-9601

구독신청:282-9603 기사제보 :282-9600 광고문의: 282-9601
E-mail - jbn8800@hanmail.net



낮에는 시원한 계곡, 밤에는 감성 공연 올여름 휴가는 남원으로!

여름휴가철 관광객 맞이 관광수용태세 강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무더위를 피하는 것을 넘어 '여름을 즐기는 여행지'를 찾는다면 전북 남원이 제격이다.

지리산이 품은 시원한 계곡과 밤을 수놓는 문화예술 콘텐츠가 어우러지며, 남원은 낮과 밤이 모두 특별한 여름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낮의 남원은 지리산 뱀사골 계곡에서 시작된다. 발을 들이는 순간 공기의 결이 달라지는 이곳은 맑은 계곡물과 울창한 숲이 만들어내는 천연 피서지다. 흐르는 물소리와 짙은 그늘 아래에서 잠시 머무는 것만으로도 도심의 열기와 피로가 잦아든다. 가족 단위 물놀이부터 여유로운 숲길 산책까지, 자연 속에서 온전히 쉬어갈 수 있는 여름 여행의 본질을 담고 있다.

해가 기울면 남원의 풍경은 '감성'으로 이어진다. 31일부터 오는 9월 19일까지 청아원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남원시립국악단의 창작 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관객을 만난다.

이번 공연은 국악 특유의 깊은 울림과 섬세한 연출이 더해져, 한여름 밤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문화적 여운을 선사한다.

광한루원의 밤은 남원 야행의 백미다. 연못 위로 비치는 달빛과 고즈넉한 정자,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진 풍경은 '전북 야행명소 10선'에 걸맞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여행이 되는 공간으로, 남원의 밤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남원 여름, 야행 맛집에서 즐기세요'를 테마로 한 다양한 야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는 별과 달을 바라보며 휴식을 즐기는 '별명달명'이, 금요일 오후 8시에는 '달빛 버스킹' 공연이 펼쳐져 음악과 야경이 어우러진 특별한 여름밤을 완성한다.

남원시는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혼불박물관, 서도역, 달빛정원(피오리움) 등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코스도 적극 운영하고 있다. 자연과 예술, 문학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이 코스는 남원을 '하루 더 머물고 싶은 도시'로 경험하게 한다.

관광객들이 더욱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도 꼼꼼히 마쳤다. 광한루원 관광안내소(해설사의 집)에는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쉼터와 관광안내 서비스를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 환경정비와 관광택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여름철 이용객이 많은 야영장에 대해서도 시설과 소방·전기 설비를 점검하는 등 누구나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원시는 올여름 '낮에는 시원한 계곡, 밤에는 감성 공연'이라는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앞세워 방문객들에게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여름휴가를 선사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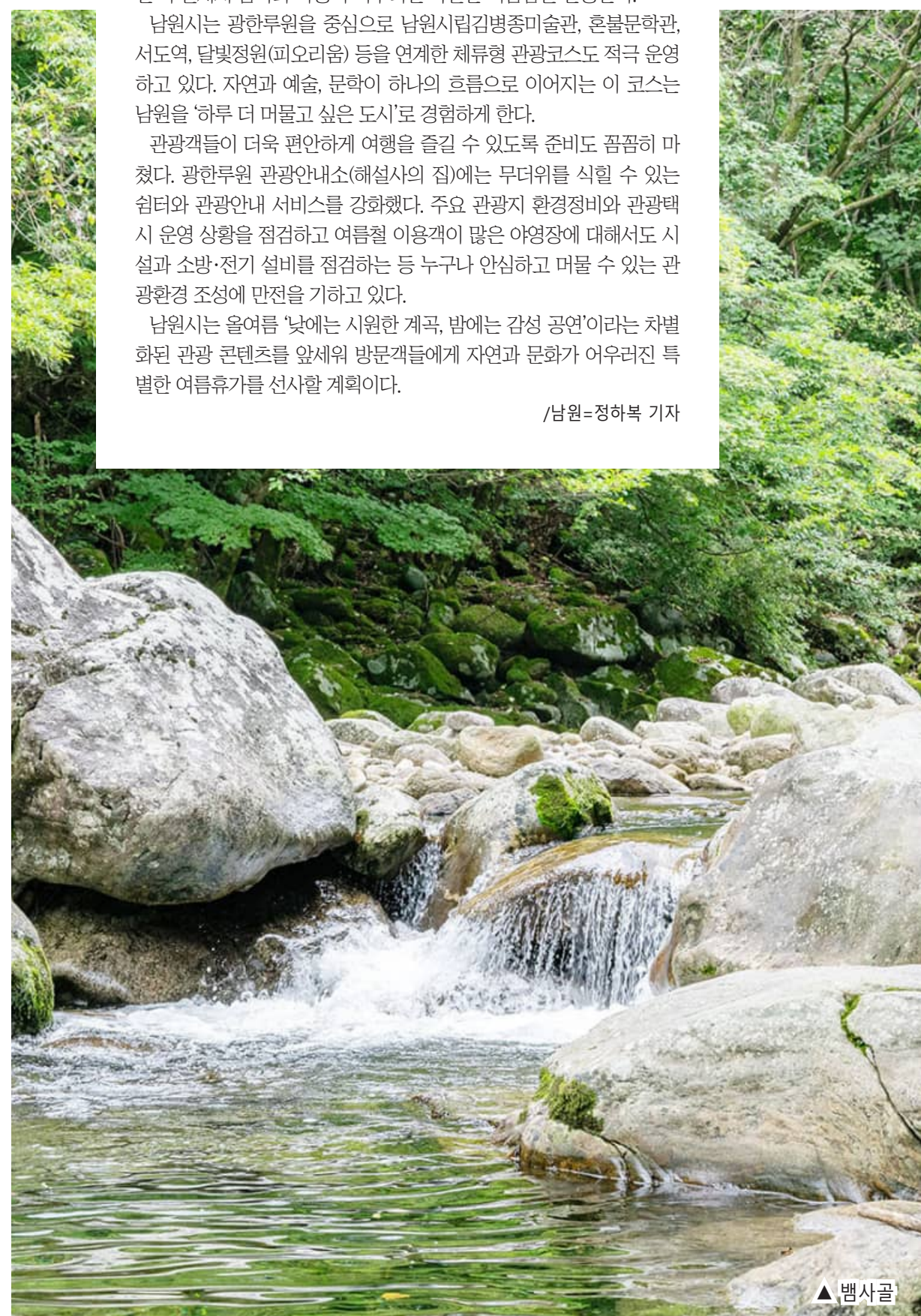
▲광한루원



▲광한루원



▲별명달명



▲뱀사골